

전북교육정책

오늘  
2



교육동향분석  
6호

# 교육 책무성 제고를 위한 국외 사례 탐색

- 학업성취 향상 정책을 중심으로 -

| 한미래(전북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I

## 들어가며

- ❑ 코로나 팬데믹 이후 특히, 교육 분야의 주 관심사 중 하나는 학생들의 학력(학습) 격차를 줄이고 학력을 향상하는 것이 되었음.
- ❑ 2022년 10월 미국 교육부는 4학년과 8학년(한국 중2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수준학업 성취도평가(NAEP)<sup>1)</sup>에서 수학 및 읽기의 성취도가 하락하였다고 발표함. 그리고 Miguel Cardona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어떤식으로 대응하는지에 따라 미국의 위상이 정해질 것이라고 하였음(NPR, 2022. 10. 24)<sup>2)</sup>.
- ❑ 핀란드에서는 2000년 이후로 학교를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감소하였지만,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상황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음. 핀란드 국가교육평가센터(Kansallinen koulutuksen arviointikeskus, Karvi)의 관계자는 읽기 능력이 제대로 되지 않은 학생들도 학교를 졸업하는 것은 학생에게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함(YLE, 2023.1.25.)<sup>3)</sup>.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2023.2.8.)<sup>4)</sup>는 지난 20년 넘게 핀란드 학생들의 학습 역량과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방안으로 학생들의 문해력 및 기초 학습 능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였음. 그리고 학생의 문해력과 성취도 향상과 관련한 사항을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행정 및 사회 전반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함.
- ❑ 우리나라의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시기보다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른 대응 전략을 발표함(교육부, 2022. 6. 13). 전라북도교육청도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을 강화하고 개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책임교육을 수행하고자 모든 학생의 학력 향상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구현하고자 함(전라북도교육청, 2023).
- ❑ 이렇듯 학생의 학력(학습) 격차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실천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 본 글에서는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이러한 사례를 우리나라 또는 우리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를 수도 있음. 이 글의 목적은 국외 사례를 통해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환경에 맞는 효과적인 학력 향상 정책을 모색하는 것임.



1) NAEP: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2) <https://www.npr.org/2022/10/24/1130629135/naep-test-covid>

3) <https://yle.fi/a/74-20014327>

4) <https://www.opi.fi/fi/blogi/lukutaitotyö-ja-kielitetoinen-opetus-tukevat-oppimis-ja-osaamistason-nostamista>

## II

## 교육 책무성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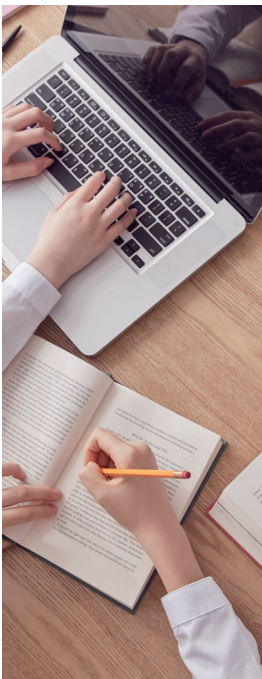
- 교육 책무성 정책은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을 위한 강력한 정책 중 하나임(김지현, 2021). 교육 책무성(educative accountability)이란 Leon Lessinger(1970)가 만든 개념으로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업성취를 학교와 그 구성원들이 책임지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 즉, 학생의 학업성취를 학교나 교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으로 교육의 결과에 정책 구현의 초점을 두는 것임(김지현, 2021 재인용).
- 우리나라의 교육 책무성 정책은 1995년 5월 31일에 단행된 ‘교육개혁안’의 중요한 운영 기제임. 세계화·정보화되는 시대적 흐름과 신자유주의 사조로 인해 공공분야 전반에 걸쳐 책무성을 강조하던 시대적 분위기 또한 이러한 정책 도입에 영향을 주었음(김규태, 2011, 박남기, 2013; 박선형, 2013, 신지승, 김규태, 2014).
- ‘교육개혁안’의 교육 책무성 논리는 자율과 경쟁을 근간으로 한 성과관리 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었음. 이러한 성과관리 체제는 시도 교육청 평가, 학교정보공시, 학교평가, 학업성취도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되었음(김규태, 2011; 신지승, 김규태, 2014).
- 그러나 성과관리 체제의 교육 책무성 정책들은 거센 비판과 정책 실행의 한계에 부딪혔으며, 여기에는 학업성취도평가가 포함되었음(김지현, 2021). 2003년 실시된 학업성취도평가는 2008년 전수조사로 확대되었으며 2011년 평가 결과를 학교 수준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되었음(김성열, 남명호, 김성숙, 정은영, 2009). 그러나 과열 경쟁, 교사 사기 저하 등의 이유로 거센 저항에 부딪혀 결국 2017년부터 표집평가로 전환되었음. 이로 인해 교육 책무성 정책 중에서 중요한 요소인 학업성취도를 전국단위의 수준으로 측정한 자료가 부재함. 뿐만 아니라 이를 대체할 학업성취 관련 자료가 없는 지금의 상황은 교육 책무성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함(김지현, 2021).
-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여(이상미, 2021), 교육 책무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외 사례를 탐색해보는 것은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 책무성 정책을 개발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함.

## III

1  
미국

## 교육 책무성 제고 국외 사례

- 미국의 교육 시스템은 환경·문화적으로 지방 분권(Local control)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교육 책무성 정책은 여기서부터 출발함(김지현, 2021). 미국 정부는 학생들의 학교 중도 탈락률이 증가하고 학업 성취도는 하락하는 공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혁신을 선언하고 2002년 아동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NCLB)을 제정하고 시행함.
- NCLB의 특징은 평가, 공개, 보상과 처벌임. 학생들의 기초학력 달성을 교육 당국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것임. 즉, 주정부가 읽기와 수학 교과목에 대해 “적정 수준의 성취(Adequately Yearly Progress, AYP)”를 기본(basic), 숙달(proficient), 우수(advanced)로 구분하고 모든 학생이 “숙달”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임(우석진, 2016).
- NCLB 정책 시행으로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고 미국 초·중등학생들의 읽기(독해력)와 수학의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었음. 또 미국의 다문화적인 환경 특성으로 인한 인종 간 학업 성취도 차이도 줄어들었음(염철현, 2016).
- NCLB 정책은 저소득층이나 유색인종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4학년, 8학년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향상시켰음(Dee & Jacob, 2011; Lauren & Gaddis, 2012).
- 그러나 NCLB 정책은 학업성취 향상이라는 목표에 과집중함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의 비정상화를 초래하였음. 평가와 관련 있는 영어, 수학, 과학 등의 시수 늘리기, 점수 부풀리기, 성취가 낮은 학생에게 전학 유도 등이 나타남. 그리고 각 주정부가 처한 상황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평가시스템으로 인해 교원단체, 교육관계자 등의 저항을 불러옴(염철현, 2016). 또한 많은 선행 연구에서 NCLB 정책이 학업성취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는 평균적인 것으로, 학생 간 학습 격차를 줄이는 데는 큰 영향이 없었음(Lee, 2008).
- 오바마 행정부는 NCLB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습 격차 줄이기, 교육 환경적인 상황에 따른 형평성 고려, 교육의 질 제고, 모든 학생의 성취 향상 등을 목표로 하는 “모든학생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을 제정하였음(2015).
- ESSA에서는 NCLB의 AYP(적정 수준의 성취)를 폐지하고 학생들을 평가하는 방법, 성취 목표 달성 시기 등을 각 주정부에서 결정하게 하였음. 읽기와 수학 교과목의 학업 성취도 및 성취 향상 정도, 기한(4년) 내 고등학교 졸업 비율, 영어 숙달 정도, 학교 교육의 질 또는 학생의 성취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 등이 학교평가에 포함됨(Batel, 2017).



- ESSA에서는 교육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서 교사의 전문성, 학교장의 리더십 향상을 위해 지원을 하였음. 즉, 결과 중심의 교육 책무성 정책에서 과정 중심으로 책무성 이행 방식을 개선한 것임(김지현, 2021).
- ESSA의 정책들은 NCLB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수립되었음. <표 1>에 NCLB와 ESSA의 특징적인 요인을 비교하여 제시하였음<sup>5)</sup>.

<표 1> NCLB와 ESSA의 정책 비교

정책 분야	NCLB	ESSA
학생평가 (Assessments)	모든 주의 3~8학년 및 고등학생 ▶ 매년 읽기와 수학 평가 ▶ 과학 영역별 평가(세번) ▶ 전체 학생의 하위 95% 평가 대상	모든 주의 3~8학년 및 고등학생 ▶ 매년 읽기와 수학 평가 ▶ 과학 영역 3과목 평가 ▶ 전체 학생의 95% 이상 평가 참여 ▶ 주정부의 선택권 확대(학생 성장 평가 도구, 횡수, 방법 등)
학교평가 (School evaluation and improvement)	▶ 각 교육구는 매년 AYP 달성 여부에 따라 학교 평가	▶ 주정부는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 ▶ 3년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평가 - 하위 5% 학교 - 졸업생 비율이 2/3 미만 - 하위집단 중 특정 집단 학생이 하위 5% 학교
책무성 (Accountability)	▶ 모든 학생이 2014년까지 읽기와 수학에서 AYP “숙달” 수준 도달	▶ 주정부는 장기 정책을 수립해야 함 - 성취도, 졸업률, 영어 능숙도 등의 목표 -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 결정
학교의 성적표 (Report cards)	▶ 매년 학교 성적표 공개 - 하위 집단의 학생 성취도 자료 - 시험 응시한 학생 비율 - 목표 대비 해당주의 성취도 - 졸업률 등 포함	▶ 매년 학교 성적표 공개 - 하위 집단의 학생 성취도 자료 - NAEP(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 학업성취 결과 - 영어 학습자의 목표 달성 정도 - 학생의 학교생활 중 성적 외의 성취도 - 졸업률, 대체 시험 응시 학생 비율 등



- ESSA 역시 성과를 목적으로 하고 학생의 학업성취와 학교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였음. 그러나 ESSA에서 평가는 학생과 학교의 수준을 파악하고 성취도가 낮은 학생과 학교의 개선점을 찾는 것에 목적이 있음.
- 그리고 ESSA에서는 모든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중요하게 다루나 모든 학생을 하나의 법적인 성취기준을 정해 놓고 평가하지 않음. 각 주정부가 지역 상황에 맞는 교육 정책과 목표를 수립하되, 그 정책은 탄탄한 연구에 기반하거나 정책의 효과성을 통계적으로 입증하는 등의 실질적인 ‘근거 기반(evidence based)<sup>6)</sup>’으로 실행되도록 하여 “모든 학생의 성공”이 교육현장에서 구현되도록 하였음.

5) 출처: Duff & Wohlstetter(2019). Negotiat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 under ESSA. Educational Researcher, 48(5), 296-308. 의 일부

6) ‘근거기반’이란 원칙을 제시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관리를 하는 것(조계현, 2017)

## 2 핀란드

- 핀란드의 학제는 예비학교(한국의 유치원)-종합학교(한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고등학교(일반고와 직업고)-대학교 또는 전문기술대학교(폴리테크닉)-대학원 과정으로 구성됨(김정현, 2014). 예비학교인 취학 전 교육과정은 6세에 1년 동안 이루어지고 7~16세까지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종합학교는 기초 교육<sup>7)</sup> 9년 과정으로 이루어짐. 우리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은 일반고와 직업 교육을 하는 직업고로 구분되어 있음. 대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은 연구에 초점을 둔 종합대학교와 실용적인 기술 및 산업 분야 프로젝트 실행에 초점을 두는 전문기술대학으로 이루어져 있음(김정현, 2014; 김선영, 2021).
- 핀란드는 국가교육과정을 1985년에 처음 고시한 후 1994년, 2004년 그리고 2014년에 개정하였음. 2014 핀란드 교육과정에서는 교사들이 지역과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제반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 즉, 교과 내용과 역량을 통합하여 수업할 수 있도록 수업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으며 교과내용 평가와 역량 평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음. 단, 역량은 직접 평가하지 않고 누적된 교과 평가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유성열, 정광순, 2018).
- 2014 핀란드 교육과정은 단위 학교가 맥락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학생의 배움과 행복이 실현되는 학교 문화가 조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유성열, 정광순, 2018).
- 핀란드의 기초 학습 지원은 <표 2>에 제시한 것처럼 3단계인 일반-강화-특별 지원<sup>8)</sup>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2> 핀란드 기초 학습 지원 단계

단 계	내 용
일반 지원 (general suppo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사가 판단하는 즉시 이루어짐.</li> <li>▶ 개별 학습, 학교 생활 지원 등이 포함됨.</li> </ul>
강화 지원 (intensified suppo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지원으로 부족한 학생 대상</li> <li>▶ 학생 개인 수준에 맞는 개별 학습</li> <li>▶ 강화 지원에서 일반 지원으로 단계를 낮추려면 학생 복지 전문가와 다각적인 협의 통해 가능.</li> </ul>
특별 지원 (special suppo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화 지원으로도 학생이 학업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교육적 판단이 될 때 행정적인 결정을 통해 이루어짐.</li> <li>▶ 특별 지원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보호자 지원, 개별 학습, 여러 전문가 협업 등이 중요한 요인이 됨.</li> </ul>

7) <https://read.bookcreator.com/6FIBoOda-pbW-EJB64icx-Z84ZvfOF4pwGWyixMPTEA/2YVbxuF2Se-J3thWX587oQ>

8) <https://www.oph.fi/fi/koulutus-ja-tutkinnot/oppimisen-ja-koulunkaynnin-tuki>





- 핀란드는 3년마다 실시하는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sup>9)</sup>에서 2000년, 2003년, 2006년 1위를 하여 세계 교육 모델의 이상형이 되었음(이보영, 2021).
- 그러나 이후 핀란드 학생의 PISA 점수는 읽기, 과학, 수학 세 분야 모두에서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학생들 간 학습 격차로 인해 형평성 문제까지 우려되는 상황임. 사회경제적 지위, 이민자 배경, 성별 같은 특성이 학습 격차의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OECD, 2020). 2003년에는 읽기와 과학은 1위, 수학은 2위였으나 2018년 읽기 7위, 과학 6위, 수학은 16위로 하락하였음. 핀란드의 PISA 연구자 Arto K. Ahonen도 교육 예산 감소, 학습 동기, 학생 배경 요인 중 가족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PISA 점수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밝혔음. 특히 핀란드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학습 동기가 수년째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하였음(iltalehti, 2022. 6. 16.)<sup>10)</sup>. 이처럼 복잡해지는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핀란드 교육 시스템 역시 높은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음(OECD, 2020).
- 핀란드의 국가 단위 교육평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독립기관인 국가교육평가센터(Karvi)에서 담당하고 있음. 국가교육평가센터에서는 국가 및 지역 수준에 적합한 교육 내용을 개발하거나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 교육의 방향을 권장하고 전반적인 교육 분야의 평가 계획을 수립함. 2020~2023학년도 평가의 주안점은 학생 학습 능력 개선, 교육에 있어서 평등, 교육 시스템의 기능 향상 등임. 국가교육평가센터에서는 취학 전 및 기초 교육 대상 학생 중 5~10%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학습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국 평균 수치와 함께 각 학교에 제공함. 그리고 학교 단위의 학생평가는 국가교육평가센터에서 제공한 학생평가 지침을 기준으로 이루어짐(이은주, 2022).
-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학습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학생의 심화 학습뿐 아니라 웰빙, 발달, 학습의 연속성 등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함. 이에 학년 초에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까지 계획해야 한다고 주장함.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 개개인의 요구를 파악해야 함. 학습 격차 해소 지원 방법으로는 그룹화, 공동체 의식 강화, 학습 방법 기술 전달 등이 있음(Opetushallitus, 2022)<sup>11)</sup>.
- 핀란드는 학생이 학교를 결석하거나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기초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학교 모델을 개발 중이며 이 학교 모델에 대해서는 2023년 봄에 발표하고 여름에 법 제정으로 시행할 예정임(Opetushallitus, 2022)<sup>12)</sup>.



9) OECD 회원국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성취 수준을 평가하여 비교 및 점검

10) <https://www.iltalehti.fi/kotimaa/a/2e48ebbc-ee6e-44b6-8130-3761a0ba9d91>

11) <https://www.oph.fi/fi/koulutus-ja-tutkinnot/perusopetuksen-jarjestaminen-ja-koronatilanteesta-palautuminen-182022-alkaen>

12) <https://www.oph.fi/fi/uutiset/2022/koulujen-keinoja-puuttua-poissaoloihin-yhtenaistetaan-ja-vahvistetaan>



## IV

## 시사점



- ❑ 학생평가에 있어 미국과 핀란드의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두 국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미국은 전국단위로 학교의 전체 학생 중 95% 이상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핀란드는 표본을 선정하여 평가를 하고 있음.

둘째, 미국은 학생의 시험 점수로 성취 수준을 판단함. 반면 핀란드는 학생의 성취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 시험 점수를 절대적인 평가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교사의 관찰 결과를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함. 따라서 학생을 평가하는 교사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단위학교와 교사에게 내적 책무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함.
- ❑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핀란드는 2000년대 초반 이후 학생들의 학습 역량과 학업성취도가 하락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2023년에 봄에 발표할 것이라고 예정함. 그 정책에 학생평가 영역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포함될지 향후 핀란드의 교육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 미국과 비슷하게 캐나다 역시 전국단위의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고 그 자료를 활용하여 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있음.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전국단위로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경우 공통의 측정 도구로 객관성을 담보한 성취 수준 판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활용함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성취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목적으로 해야 함. 그러나, 많은 교육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평가 결과를 학교 또는 학생 간 상대적인 위치 파악이나 비교를 위해 활용한다면 의도한 교육 정책의 성과를 달성하기도 전에 적지 않은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음.
- ❑ 국가 또는 교육청 수준의 학생평가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국외 사례를 통해 학업성취도평가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학업성취도평가를 시행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평가의 목적과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지향점을 일치시켜가는 노력이라고 생각함.
- ❑ 마지막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은 학업성취 향상 중심의 교육 책무성 정책이 교육 현장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학생평가를 통한 학업 수준 진단 및 그 평가 결과 활용 방법에 대해 실천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교육부(2022). 202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대응 전략 발표, 2022. 6. 13(월)
- 김규태(2011). 교육 책무성 정책에 의한 교직변화에 대한 구조적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8(92), 237-256.
- 김선영(2021).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국가 교육과정에서의 역량 반영 및 제시 방식 연구: 핀란드 교육과정의 사례를 바탕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2), 693-713.
- 김성열, 남명호, 김성숙, 정은영(2009).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발전방안.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정현(2014). 핀란드의 기초교육법과 교육제도. 공법연구, 42(4), 201-226.
- 김지현(2021). 책무성 정책 2.0: 미국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의 사례로 본 책무성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시사점. 교육행정학연구, 39(2), 69-94.
- 박남기(2013). 초·중등교육 책무성 개념 및 시스템 도입의 배경과 맥락. 교육행정학연구, 21(2), 347-376.
- 박선형(2013). 교육책무성: 개념과 원리 및 쟁점. 교육행정학연구, 21(2), 117-150.
- 신지승, 김규태(2014). 한국 초·중등 교육의 책무성 연구 동향 분석. 열린교육연구, 22(4), 347-370.
- 염철현(2016). 미국의 ‘모든 학생의 성공법(ESSA)’ 제정 및 시사점. 교육법학연구, 28(1), 81-101.
- 우석진(2016). 안녕! 아동학대방지법-채찍과 당근의 이야기. 나라경제 1월호.
- 유성열, 정광순(2018). 2014 핀란드 교육과정으로 본 학교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국가교육과정의 역할 탐색. 통합교육과정연구, 12(4), 171-196.
- 이보영(2021). 핀란드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자성의 목소리 높아져. EBSNEWS, 2021. 9. 10.
- 이상미(2021). 문재인 정부 4년간 기초 학력 미달 지속 증가했다. 한국교육신문. (2021년 6월 2일).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3954>
- 이은주(2022). 핀란드의 초·중·고 기초 학력 보장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22년 7월호 해외교육동향 기획 기사.
- 전라북도교육청(2023). 학력 향상 추진 계획.
- 조계현(2017). 낙오학생방지법(NCLB)의 ‘과학 기반(scientifically based)’에서 모든 학생의 성공을 위한 법(ESSA)의 ‘근거 기반(evidence based)’으로의 변화 - 개념과 관련 쟁점의 이해. 교육법학연구, 29(1), 169-198.
- Batel, S. (2017). Measuring Success: An Overview of New School Classification Indicators under ESSA. Part of a Series on Implementation of the Every Student Succeeds Act.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 Dee, T. S., & Jacob, B. (2011). The impact of No Child Left Behind on student achievement.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30(3), 418-446.
- Duff, M., & Wohlsetter, P. (2019). Negotiat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 under ESSA. Educational Researcher, 48(5), 296-308.
- iltalehti(2022). The collapse of Finnish learning outcomes is unparalleled in the world - what went wrong? 2022. 6. 16.  
<https://www.iltalehti.fi/kotimaa/a/2e48ebbc-ee6e-44b6-8130-3761a0ba9d91>
- Kalenius, Aleks(2023). Education and Culture Review 2023. 1.20. 핀란드 교육문화부 간행물.  
<https://julkaisut.valtioneuvosto.fi/handle/10024/164564>(2023. 4. 3일 인출)
- Lee, J. (2008). Is test-driven external accountability effective? Synthesizing the evidence from cross-state causal-comparative and correlational studi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8(3), 608-644.
- OECD (2020). Education Policy Outlook: Finland.  
[www.oecd.org/education/policy-outlook/country-profile-Finland-2020.pdf](http://www.oecd.org/education/policy-outlook/country-profile-Finland-2020.pdf).
- Opetushallitus(2022). Organising basic education and recovering from the coronavirus.  
<https://www.oph.fi/fi/koulutus-ja-tutkinnot/perusopetuksen-jarjestaminen-ja-koronatilanteesta-palautuminen-182022-alkaen>
- Opetushallitus(2022). Schools' means of tackling absenteeism will be harmonised and strengthened. 2022. 9. 7.  
<https://www.oph.fi/fi/uutiset/2022/koulujen-keinoja-puuttua-poissaoloihin-yhtenaistetaan-ja-vahvistetaan>
- Opetushallitus(2022). Support for learning and school attendance.  
<https://www.oph.fi/fi/koulutus-ja-tutkinnot/oppimisen-ja-koulunkaynnin-tuki>
- Opetushallitus(2023). Literacy work and language-aware teaching support raising the level of learning and competence.  
<https://www.oph.fi/fi/blogi/lukutaitotyo-ja-kielitietoinen-opetus-tukevat-oppimis-ja-osaamistason-nostamista>
- Sequoia Carrillo(2022). Student math scores are down from pre-COVID levels, the National Report Card finds npr. October 24, 2022.  
<https://www.npr.org/2022/10/24/1130629135/naep-test-covid>
- U.S. Department of Education. “Executive Summary” January 2001.  
<https://www2.ed.gov/nclb/overview/intro/execsumm.html>
- U.S. Department of Education. “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  
<https://www.ed.gov/esea>
- YLE(2023). There is no longer a desire to leave students in class, even if everyone's skills are not enough to reach the next level. yle. 25. 1, 2023.  
<https://yle.fi/a/74-20014327>

- 이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전북교육정책연구소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자의 견해를 밝힙니다.
- <교육 책무성 제고를 위한 국외 사례 탐색>은 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홈페이지 [교육정책연구-미래교육동향]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보고서 바로가기